제주시 문화관광 경쟁력 향상 방안

金 鍾 元
(영화평론가 · 시인)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문화관광으로 가는 길
3. 시민이 참여하는 동네 명소 찾기 운동
4. 관련자원 보존 개발할 문화센터의 운영

1. 들어가는 말

이른바 육지로부터 떨어진 지역적 특성과 한계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제주도는 그동안 천혜의 자연환경에 힘입어 어렵지 않게 관광소득을 얻는 무임승차의 행운을 누렸다.

그러나 이제는 더이상 '천혜의 보고(寶庫)'에만 의존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다. 안이하게 자연경관이나 파는 '보는 관광'만으로는 2000년대에 가장 중요한 산업영역이 될 관광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동남아 등 이미 외국으로 관심을 돌린 국내 관광객 (94년 기준 3백 47만 1백 6명)의 발길을 돌리게 하기는 커녕 그나마 유지해 온 외국인 관광객 (22만 2천 4백 42명)의 유치 수준조차 확보하기에 버거운 사태에 이를지도 모른다.

제주관광의 경쟁력을 기를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는 두말할 필요없이 관광패턴의 변화. 곧 '즐기고 쉬었다 가는 체험관광'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충하는 길일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한 도 · 시민들의 공감대는 이미 형성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 점에서 선택의 여지없이 짜여진 일정에 따라 잠시 둘러보고 가는 변화없는 자연관광, 패키지 관광이 아니라 밤시간을 활용하고, 스스로 찾아가도록 유인하는 다양한 '체험관광'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이 문제는 문화관광의 측면에서 이해되고 모색되어야 할 필수적인 대안이라고 생각된다.

'문화관광'이라 함은 자연상태의 볼거리와 대립되는 언어 · 풍습 · 제도 · 생활양식 및

학문·예술 따위의 총체로서 여가를 선용한 오락·휴식·탐방 성격의 관광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아무리 '문화관광'이라 하더라도 '자연관광'과의 연계없이는 곤란하다는 점이다. 행정적 개념인 제주시만을 분리하여 따로 문화관광의 경쟁력 향상 방안을 거론한다는 것은 매우 미묘하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발표는 관광산업의 특성상 연계될 수 밖에 없는 인근 지역과 제주공항에서 10분 내외 거리의 지역을 포괄하는 제주시 권(圈)을 대상으로 한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2. 문화관광으로 가는 길

그러면 21세기에 더욱 각광을 받게 될 관광산업의 첨병으로서 경쟁력을 높이고 활성화 되어야 할 제주시 문화관광의 돌파구는 어떤 것일까. 이 문제는 전문가가 아닌 발표자가 거론하기엔 적합치 않지만 나름대로 그 방안의 밑그림을 그려 보았다.

먼저 제주시권의 관광지를 타원형의 구조로 파악하였다. 즉 제주시청을 중심으로 탑동해변관광 - 사라오름 - 삼양유원지 - 봉개 휴양림 관광단지 - 제주컨츄리 골프장 - 방선문 - 오라 골프장 - 신천지 미술관 -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 외도천변 고인돌군(群) - 이호해수욕장 - 용두암 (이상 시계 방향) 등에 이르는 외곽코스가 바로 그것이다. 이 지역 안에 포함된 삼성혈·관덕정·민속자연사박물관·탐라목석원·제주민속박물관·제주관광민속관 등은 모두 유력한 문화관광 자원으로 꼽을 수 있는 것들이다.

이를 다시 해안권(삼양유원지·사라봉·서부두 방파제·탑동광장·용연·용두암·이호해수욕장)과 도심권(관덕정·삼성혈·민속자연사박물관·제주관광민속관), 중산간권(항몽유적지·신천지미술관·오라골프장·제주컨츄리골프장·탐라목석원·방선문·봉개 휴양림 관광단지)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심권은 신제주를 현대감각과 전원적 정감이 어우러지는 유락 중심지역으로 양립시키고 구제주는 섬의 구심점으로서의 정체성을 살린 향토문화의 현장 체험 위주 지역으로 특성을 살려 차별화하는 관광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모래찜으로 옛명성 찾기가 기대되는 삼양유원지에서 이호해수욕장에 이르는 동서해안권은 장차 개설 가능성이 높은 관광용 협궤열차와 연계시켜 생각할 때 이호포구(梨湖浦口)의 낚시와 더불어 외도천변·광양2리 일대에 자리한 도내 최대 고인돌 유적지의 관광자원화도 전망이 흐리다고 볼 수 만은 없다.

중장기적인 계획으로는 현재 관덕정까지 이어진 지하상가를 십자형으로 확장하자는 것이다. 즉 중앙로 입구를 중심축으로 동문시장 부근까지 연장하여 동문 로터리와 잇게 하고 중앙로에서 탑동해안에 이르는 남북거리를 지하상가로 만들어 명실상부한 쇼핑의 명소로 조성하자는 얘기이다.

이 지하상가의 중앙지점에는 조각을 갖춘 분수대를 설치하여 관상효과를 높이고 일반 상품 뿐 아니라 양질의 관광토산품 판매 코너를 마련하여 외래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물건을 사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이 상가의 확장은 시외권과 제주인의 진솔한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동문시장과의 접근을 용이하게 해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단조롭고 짧은 지하상가 때와는 달리 코스가 탑동 공원 - 서부두 방파제 쪽으로 복선화 됨으로써 한겨울에도 바다를 쉽게 볼 수 있고 신제주의 관광객까지 유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어서면서 우리나라도 조명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가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개선문 · 콩코드 광장 등의 화려한 환경조명은 파리를 '불야성의 도시'로 인식시켰을 뿐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상가 · 개선문 앞 대형 비디오 · 오디오 숍의 조명은 도시의 이미지를 높이고 판매고를 증진시키는 이득을 가져왔다. 또한 범죄의 감소와 구매력의 충동을 심어주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래서 프랑스의 어느 시장 선거에선 '도시조명'이 공안으로 나왔을 정도였다.

그런데 밤만되면 죽은 거리로 만든 제주 관광 행정의 무감각은 낮의 소득만 살린 '절반의 승부'를 자초함으로써 근본적인 대책을 요망케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최근 각광을 받기 시작한 제주경마장의 야간경마는 시사하는 바가 큰 모범답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93년부터 야간관광의 불모지인 제주에 생긴 이색적인 이 레저프로그램 (96년 하루 평균 매출액 9억 6천 9백만원)은 자리를 잡아가면서 유력한 문화관광 상품으로 떠올라 적극적인 홍보만 밑받침된다면 외래 관광객까지 흡수하는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주 재래마의 투마 (鬪馬)도 관광자원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 어떤 점에선 남미 등지에서 성행하는 투계보다 역동적인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야간 조명의 유력 후보지역으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인 신제주 유흥가 외에 중앙로 주변의 상가와 관덕로 · 탑동 해변공원 일대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3. 시민이 참여하는 동네 명소 찾기 운동

제주시 관광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상품의 창출과 개발이 시급하다. 그 방안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시민이 참여하는 동네 명소 찾기 운동이다. 이는 역사 명소 찾기 (건축 유적 · 역사인물 행적) 생활 명소 내세우기 (거리, 골목, 역사적 사건 장소), 인물 명소 다듬기 (주요 인물의 생가, 작품무대 등 예술과 관계된 장소) 자연명소 살리기 (영주 10경 중 3경인 용연야범, 영구춘화, 사봉낙조 등과 방치된 경관)와 결부된다.

우선 역사 명소 찾기로서는 일도동과 삼도동을 동서로 잇는 제주시의 옛 중심가 칠성

로 칠성대 (七星坮)의 재조명과 오현단성의 단장을 통한 유적 다듬기를 들 수 있다.

칠성대 (또는 칠성단)는 삼을라(三乙那)가 이 땅에 건국의 기초를 세우는 과정에서 부족간의 결속과 통합을 도모하고 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기 위해 '북두칠성이 배열된 형상을 본받아 쌓은 제단' (홍정표 : 탐라사에 관한 기고)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역사 명소 찾기는 바로 이처럼 묻혀져가는 유적이나 자취를 발굴, 가꾸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은 흔적없이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표적을 세워 향토교육 자료로 삼고 관광자원화하는 것은 매우 뜻있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칠성대의 위치를 한눈에 조감할 수 있는 모형의 제작 설치도 제주시민의 몫이다.

칠성로는 제주문화의 요람지이기도 했다.

예술을 지망하는 이 고장 젊은이들이 남궁다방·동백다방 등에 진을 치고 작가 계용묵, 화가 김창렬 등과 같은 월남 피난민을 찾아 인생을 배우고 예술을 토론하던 곳도 여기였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고장 최초의 언론매체 제주신문사가 창간되고 판각(板刻)을 전문으로 하는 인장집 영주상미원(瀛州尙美院)이 자리잡은 장소 역시 칠성통이었다.

생활명소 내세우기의 예로는 목관아지 발굴사업이 진행중인 관덕정을 들 수 있다. 알려진 사실 (활쏘던 정자·세종 30년 창건) 외에도 관덕정은 4·3사건의 기점이 된 3·1 집회, 신탁통치 반대 운동, 이승만 대통령 내도 연설, 이덕구의 시신 공개, 신카나리아를 비롯한 군예대의 위문공연 등 제주역사의 희비가 교차된 광장을 포용하고 있다. 이점은 기억되어야 하고 또 기록으로 남겨져야 한다. 그것은 뼈저린 역사의 교훈으로 각인되어야 할 작재적 문화자원이기 때문이다.

인물 명소 다듬기의 경우로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총리와 도지사, 도립병원장, 지방방송 설립자 등 네명의 인물을 배출한 입지전적인 거상 박종실(朴宗實)옹의 저택을 들 수 있다. 이 집이 헐리고 없다면 그 자리에 표시판이라도 남겨져야 함이 마땅하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정문의 녹나무와 함께 제주도의 명물로서 사랑을 받았던 12세기 서양건축 양식인 고딕건물 중앙성당이 헐리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4·3 비극을 상징하는 중산간촌의 방어용 돌담성이 하나도 남지 않은 채 사라져 버렸을 때의 착잡함처럼 유감스러운 일이었다.

주택 개량을 한다는 새마을 사업의 명분아래 싸구려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꾼 군사정부의 초가지붕 몰아내기 정책, 생활 폐기물이 앗아간 용연야범 (龍淵夜汎)의 돌이킬 수 없는 상처도 마찬가지이다.

자연명소 살리기의 형태는 해녀의 겨울바다 물질, 소라 조개잡이의 체험관광이 기대되는 북촌에서 이호해수욕장에 이르는 해상 유람선의 운행을 통해 사봉낙조의 진가를 높이고 바다 위를 걷는 서부두 방파제의 독특한 관광체험과 탑동공원의 상설 무대화 및 거리화가의 활동 유도, 용두암과 연계시킨 용연의 중단기적인 경관 돌려놓기 운동으로 설명될 수 있다.

특히 탑동해변 공원에는 6·25 전쟁 당시 제주일중에서 교직생활을 한 것을 계기로 이 지역과 인연을 맺은 외교관 출신의 작곡가 변훈의 '떠나가는 배' (양중해 작시) 노래비 설립을 적극 추진할 당위성이 있다.

'떠나가는 배'야 말로 이 지방에 피난왔던 실향민들의 아픔과 육지를 향한 제주 사람들의 동경이 항구 특유의 애틋한 애수와 어우러져 서른 정감을 자아내게 한 가장 제주도적인 가요이며, 더우기 노랫말의 창작자와 무대가 바로 제주시인이요 바닷가라는 데에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

거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용연에도 한 시인이 남긴 전설같은 사연이 있다. '나그네;의 시인 박목월이 몇달동안 묵었던 이 용연 바닷가의 초가는 뒷날 애창가요가 된 '이별의 노래'의 산실이 되었다. 언젠가는 그 노래에 담긴 사연과 함께 용연이 관광자원화 될 날이 있을지도 모른다.

전설은 따로 있는게 아니다. 당대는 무심히 스쳐버렸던 사소한 추억도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엔 전설의 무게로 떠올라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었음을 외국의 사례들은 잘 말해주고 있다.

4. 관련자원 보존 개발할 문화센터의 운영

최근 문화체육부에 의해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건축물로 선정돼 제7회 대한민국 환경문화상 종합대상을 받은 신산공원의 제주관광민속관은 이 수상 자체가 관광 자원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 힘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기존계획 외에 제주도의 주요 유적·명승지를 표시한 대형모형과 칠성대의 모형을 설치하고 민속사진 전시실을 갖춰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제공한 풍속사진을 전시케하는 방법을 쓸 수가 있다. 그런 한편 선별적으로 기념관적 성격을 지닌 별도의 상설공간을 부여하는 배려도 고려해 볼만 하다. 이 경우 만농(晩農 洪貞杓)이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98년 완성 (제작비 25억 예상) 목표로 제작 기금 마련을 위한 특별 전시회를 가져 큰 호응을 받은 4·3소재의 장편만화 영화 '오돌또기'의 원화 캐릭터의 모형을 확보, 상설 전시케 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충분하다. 특히 격랑의 자연과 싸우며 모질게 살아온 제주인의 삶을 애수의 가락속에 표출한 민요 '오돌또기'를 제목으로 내세운 이 애니메이션영화에는 이미 제주의 강요배 화백과 현기영 작가가 참여하고 있다.

행정당국은 이 기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관계 단체의 협조와 참여 아래 제작비를 후원하는 방식으로 일부 캐릭터의 판권을 확보, 전시회는 물론 의상, 모자, 가방 등의 제작 판매와 모형 장난감 등의 상품화를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도농촌진흥원의 자원아래 생활개선회가 추진하고 있는 갈옷의 실용적 개발과 상

설 판매장의 개설을 상기할 때 젊은 관광객의 취향에 맞출 수 있는 문화상품이라고 생각된다.

봉개 휴양림 관광단지에는 작가촌을 조성하여 관심있는 전국의 예술가들을 유치, 안락한 휴식과 창작의 공간을 제공하도록 한다. 특히 인근 지역에는 가축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는 아름다운 전원 풍경이 펼쳐져 마치 영주 10경의 하나인 고수목마(古藪木馬)의 재현을 방불케 하는 명도암 목장이 자리잡고 있다. 휴양림 관광단지와 더불어 영화 촬영의 최적지로 지목 할 수 있다.

한림수직과 제휴, 담요, 스웨터 등이 고가제품으로 팔려 나가는 이시돌 목장의 경우처럼 이곳에서도 이런 제품의 상품화가 이루어진다면 유휴인력의 활용은 물론 관광소득의 잇점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협궤열차와 어우러지는 해안 드라이브 코스의 보완 정비와 중앙로 지하상가의 십자형 연장 신설과 함께 문화관련 자료를 통합하고 활용할 문화센터의 설립 운영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문화 센터는 관광자원이 될 향토문화의 자료와 정보를 종합, 체계적으로 수정, 정리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시민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기능도 맡게 된다. 여기에는 기록사진, 공연 프로그램, 포스터, 연극대본, 악보, 슬라이드, 음반, 비디오 등의 수집과 보관, 열람이 포함된다.

그리고 제주도 초유의 시인 김지원 (金志遠)의 초상화를 비롯한 육필작품 등과 우생당 서점을 경영한 이 고장 최초의 출판인으로서 지역문화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고순하(高舜河)사장의 간행저작물, 예컨대 김동리, 황순원, 계용묵, 허윤석 공저인 '4인 단편집', 알베르 까뮈의 희곡 '정의의 사람들'등과 실향 문인 계용묵의 주도 아래 그의 도움을 받아 내놓은 정기 간행물 '신문화' 등도 보관 전시되어야 할 것이다. 해정 박태준(海丁 朴泰俊)의 서예와 작고한 강태석(姜泰碩)의 개성있는 회화들도 기증받거나 구입하여 전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제주문화센터의 독립적인 신설이 곤란하다면 시가 도남동 40만평 부지에 조성예정인 시 상징공원 내 시민종합복지센터와 별개로 추가시키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의 돌과 나무는 남도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자원이다. 이 돌과 나무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수석과 분재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형 수석, 분재 상설 전시관의 운영도 검토해 볼 만한 유력 문화관광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도내의 유명 탐석가들과 분재 전문가들의 기증이나 보관형태로 순환 전시할 수 있는 변화의 장점을 기대할 수 있다. 동양화가로서 수석에 남다른 안목과 애정을 가졌던 허건 남농(南農) 수석관이 목포의 빼어놓을 수 없는 관광자원이 되고 있음은 이런 제안의 실현성을 한층 높혀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취약한 밤 문화의 관광 활성화는 호텔 경영자의 의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부산 등 도시와 차별되는 향토문화의 프로그램 개발은 당장엔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적절한 현대 가무와의 균형과 조화를 이룬다면 극장식당의 향토문화의 이벤트화는 그리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와는 별개로 독자적인 향토문화 전문극장의 창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시즌과 주말에 집중 형성되는 운영 방식으로 이 전문극장에선 '배비장'을 리메이크한 '살짜기 옵서예'류의 뮤지컬이나 제주섬을 만든 창조신화의 뿌리 '설문대할망', 이상향의 상징인 '이어도'의 극화는 두말할 것 없고, '느영나영 풀멍 살게'와 같은 현대극의 상영도 검토될 만하다.

아울러 야외무대를 이용한 축제 이벤트도 관심을 끌 만한 관광 프로그램의 하나일 것이다. 이 취지에 합치되는 소재로는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수상작들인 '영감놀이'(67년 대통령상 수상)를 비롯 '영등굿놀이' (68년 국무총리상 수상) '해녀놀이' (69년 문공부장관상), '멸치 후리는 노래'(80년 대통령상 수상)와 유희적 성격이 강한 '입춘굿 놀이', '회천 놀이', 가면극 따위를 들 수 있다.

민속축제는 당대의 사회상과 민초들의 삶의 모습을 투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축제의 이벤트화는 문화관광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 빼어 놓을 수 없는 것은 신천지 조각공원의 시비군(詩碑群)으로서 그 규모나 집념에 비해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세계 섬 문화 축제와 병행하여 격년제의 비경쟁 '세계 향토 영화제' 또는 평화의 섬임을 짙게 나타내는 '지구촌 인간 영화제'를 개최하는 구상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끝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섬 특유의 자연경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제주의 면모와 가볼만한 문화명소, 문화공간 및 음식점 등에 대한 정보가 실린 가이드 북 '제주문화지도'를 서둘러 제작해야 한다는 점이다.

제주시 문화관광의 동맥은 자원을 창출하고 확대·생산하는 데 있지만 그것은 재원의 밑받침될 때만이 가능한 꿈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